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Trade Focus

Vol14. No.27

무역업계가 바라본 新FTA 추진 전략

— FTA 추진 우선대상 및 기체결 FTA 개선 사항—

2015년 7월

이혜연 연구원

제현정 연구위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목차

[요 약]

I. 조사 배경 및 개요	1
1. 조사 배경	1
2. 조사 개요	2
II. 조사 결과	3
1. 메가 FTA 우선 순위	3
2. 양자 FTA 우선 순위	4
3. 기발효 FTA의 개선 요구	11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5

☐ 보고서 내용 문의처

이혜연 연구원(☎ 02-6000-5498, haeylee@kita.net)

제현정 연구위원(☎ 02-6000-5175, hjje76@kita.net)

- 요약 -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新FTA 추진 전략(2015.4월)’ 과 관련하여 무역업계의 FTA 추진 우선 대상국 및 요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총 762개社)를 실시한 결과, 메가 FTA 중 한·중·일 FTA가 가장 필요하며, 향후 FTA 추진 우선 대상국으로 일본을 선택한 비율(35.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출 중심 기업에 비해 수입 위주 또는 수출입이 모두 활발한 기업들이 일본과의 FTA 선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한·일 FTA의 업종별 선호도는 기계(47.0%), 전자·전기(44.2%), 정밀기계(40.5%)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일본과의 FTA 선호도가 높고 러시아(11.4%), GCC(8.5%) 등 잠재력이 큰 신흥국과의 FTA가 뒤를 이었다. 대기업은 MERCOSUR, 중소기업은 러시아와의 FTA를 일본에 이어 2순위로 꼽았다.

향후 FTA 추진 시 FTA의 질적 개선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업체들의 58.8%가 원산지규정 등 FTA 활용 절차 간소화를 희망했으며, 신속한 관세철폐(34.1%), 수준 높은 개방(31.4%)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FTA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들의 절차 간소화(63.0%) 요구가 가장 많았다.

또한, 응답기업의 72.8%가 이미 발효 중인 FTA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현재 발효 중인 FTA 중 개선 요구가 높은 FTA는 한·인도 CEPA(41.6%), 한·ASEAN FTA(41.6%), 한·미 FTA(31.4%)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FTA 정책 추진에서는 메가 FTA와 함께 일본을 비롯한 러시아, MERCOSUR 등과의 FTA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신흥시장과의 FTA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는 동시에 기발효 FTA의 질적 개선 작업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I. 조사 배경 및 개요

1. 조사 배경

□ 2015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FTA 정책을 반영한 ‘新FTA 추진 전략’을 발표

- 新FTA 추진 전략은 메가 FTA 대응, 기체결 FTA 개선, 유망 신흥시장과의 신규 FTA 추진이라는 세 가지 정책 목표를 설정
- (메가 FTA 대응) TPP, RCEP 등 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다자간 FTA가 활발하게 추진됨에 따라 우리가 기존에 구축한 FTA 플랫폼을 바탕으로 지역경제통합의 핵심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
- (기체결 FTA 개선) 기체결 FTA 중 시장개방수준이 높지 않아 상대적으로 활용률이 낮은 한-ASEAN FTA, 한-인도 CEPA를 중심으로 업그레이드 추진 필요
- (유망 신흥시장과의 신규 FTA 추진) 상대국의 경제·국제 정치적 상황 및 통상정책을 고려해 중동, 중남미 등의 신규 FTA 대상국을 권역별로 분류하고 FTA를 추진
- * 우리나라는 한·중·일 최초로 SIECA¹⁾와 FTA 협상을 개시(2015년 6월 19일)했고, 연내 에콰도르와의 FTA 협상 개시 추진 중

<권역별 신규 FTA 추진 계획>

중남미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아시아
SIECA, 에콰도르, MERCOSUR ²⁾	요르단, GCC ³⁾ , 이스라엘	몽골,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일본,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 정부의 ‘新FTA 추진 전략’을 추진하는데 있어 우리 무역업계가 희망하는 향후 FTA 추진 우선 대상국 및 FTA 관련 요구 사항 파악 필요

1) SIECA(중미경제통합기구: Secretaria de Integración Económica Centroamericana):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6개국
2) MERCOSUR(남미공동시장: Mercado Común del 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5개국
3) GCC(걸프협력회의: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

2. 조사 개요

□ 설문조사는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및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762개 업체가 설문에 응답

- 응답업체 762개社 가운데 86.2%는 종업원 수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다수인 우리나라 기업 분포에 부합
- 응답업체 762개社는 수출중심(40.6%), 수입중심(15.4%), 수출입 모두 활발(26.8%), 국내납품 중심(17.3%) 등 다양한 사업형태로 구성

【설문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무역업체 및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대상으로 랜덤(random) 표본 추출
- 유효표본 : 762개 업체
- 조사기간 : 2015년 5월 11일~5월 27일
- 조사방법 : 구조화 된 질문지를 이용한 웹 설문조사(e-mail, 전화, 팩스 조사 병행)
- 수행기관 : 한국무역협회

□ 이번 설문조사는 일부 업종의 유효표본이 충분하지 않고, 업종별 무역액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았음

-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기업별 규모(수출입 금액, 종업원 수)와 업종별 수출입 규모에 대한 가중치는 반영하지 않음

II.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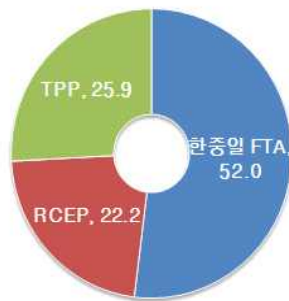
1. 메가 FTA 우선 순위

□ 무역업계는 현재 협상 중이거나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메가 FTA 가운데 한·중·일 FTA가 가장 필요하다는 입장

- 응답업체의 52.0%가 한·중·일 FTA를 필요한 메가 FTA 1순위로 꼽았으며 TPP(25.9%), RCEP(22.2%)이 그 뒤를 이음

〈메가 FTA 중 우선순위〉

(단위: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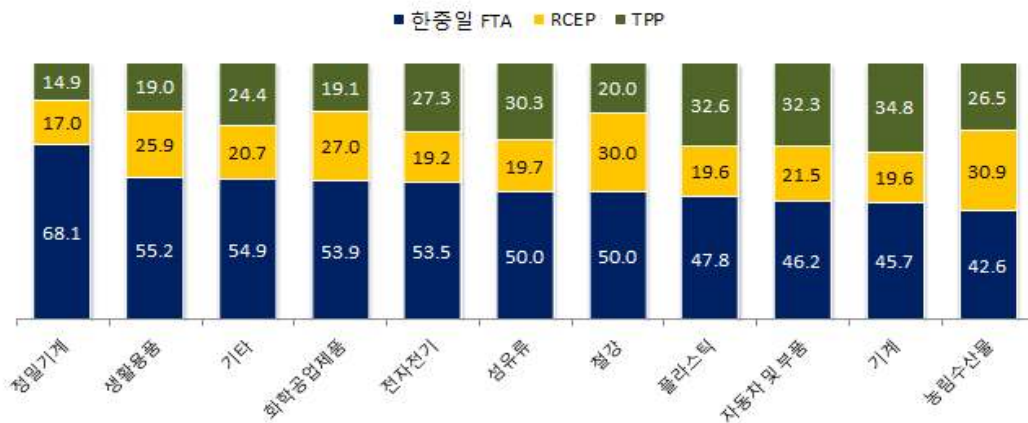


주: N=762

□ 한·중·일 FTA를 1순위로 꼽은 업종은 정밀기계(68.1%), 생활용품(55.2%), 화학공업제품(53.9%) 순으로 나타남

〈업종별 필요 1순위 메가 FTA〉

(단위: 비중, %)



주: N=7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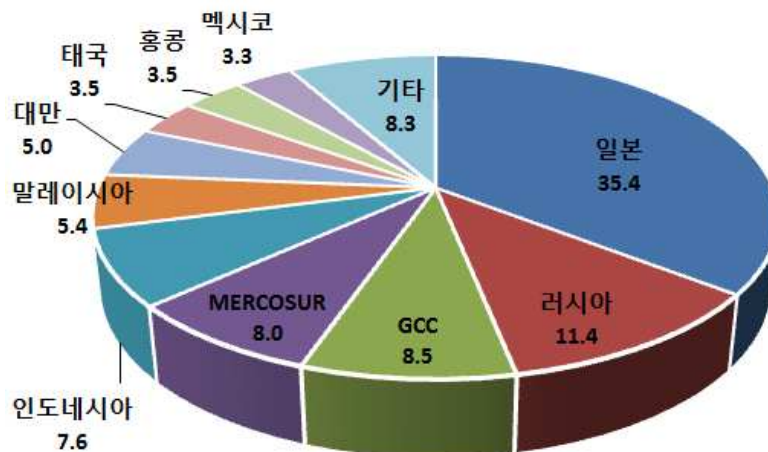
2. 양자 FTA 우선 순위

□ 향후 우리나라가 우선적으로 체결해야 할 양자 FTA로는 응답자의 35.4%가 한·일 FTA를 꼽음

- 일본의 뒤를 이어 러시아(11.4%), GCC(8.5%), MERCOSUR(8.0%)등이 FTA 추진 우선 대상국으로 나타남
- 한·ASEAN 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7.6%), 말레이시아(5.4%), 태국(3.5%) 등 ASEAN 국가와의 양자 FTA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한·ASEAN FTA는 2007년 6월에 발효되었으나 개방수준과 활용도가 낮아 개선 요구가 지속되어 왔으며, 베트남과는 이미 양자 FTA를 체결
- * 베트남: 한·베트남 FTA 정식 서명 완료 후, 비준 절차 진행 중, 인도네시아: FTA 협상 중단, 말레이시아: 공동연구 완료, 태국: 공동연구 중
- 이 외에 FTA 추진 희망 국가로는 대만(5.0%), 홍콩(3.5%) 등 중화권 국가와 중미 6개국(1.8%), 이스라엘(1.3%), 파키스탄(1.0%) 등이 있음

<향후 FTA 추진 희망 국가>

(단위: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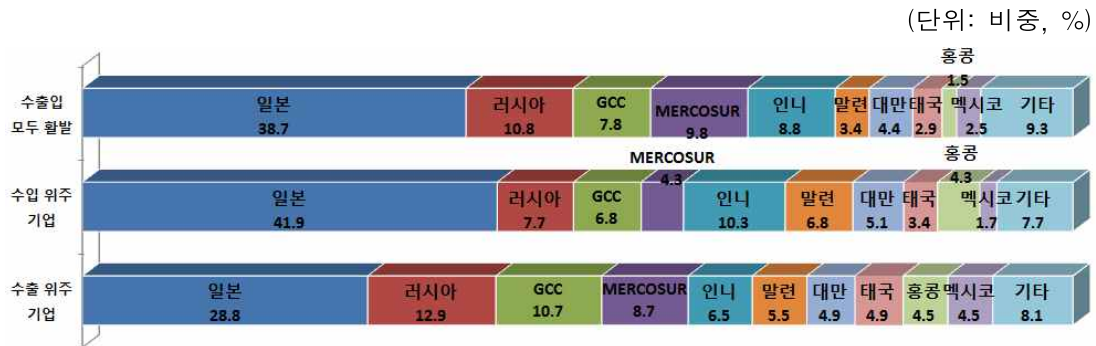


주: N=762

□ (수출입 유형별) 수출 중심기업보다 수입 위주 또는 수출입이 모두 활발한 기업들이 일본과의 FTA 체결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을 FTA 대상 1순위로 꼽은 비율은 수출 위주 기업이 28.8%인 반면, 수입 위주 기업과 수출입이 모두 활발한 기업은 각각 41.9%, 38.7%를 차지
- 수출 위주 기업들은 일본 이외에 러시아(12.9%), GCC(10.7%), MERCOSUR(8.7%), 멕시코(4.5%) 등 시장 규모가 큰 신흥국과의 FTA를 원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반면, 수입 위주 기업들은 자원 수입 비중이 큰 인도네시아(10.3%), 말레이시아(6.8%) 및 대만(5.1%)과의 FTA를 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수출입 유형별 FTA 추진 희망 국가>



주: 수출입 모두 활발 N=204, 수입 위주 N=227, 수출 위주 N=309

□ (기업규모별) 대기업 및 중소기업 모두 FTA 추진 우선대상국으로 일본을 꼽았으며, 그 뒤를 이어 대기업은 MERCOSUR, 중소기업은 러시아와의 FTA를 선호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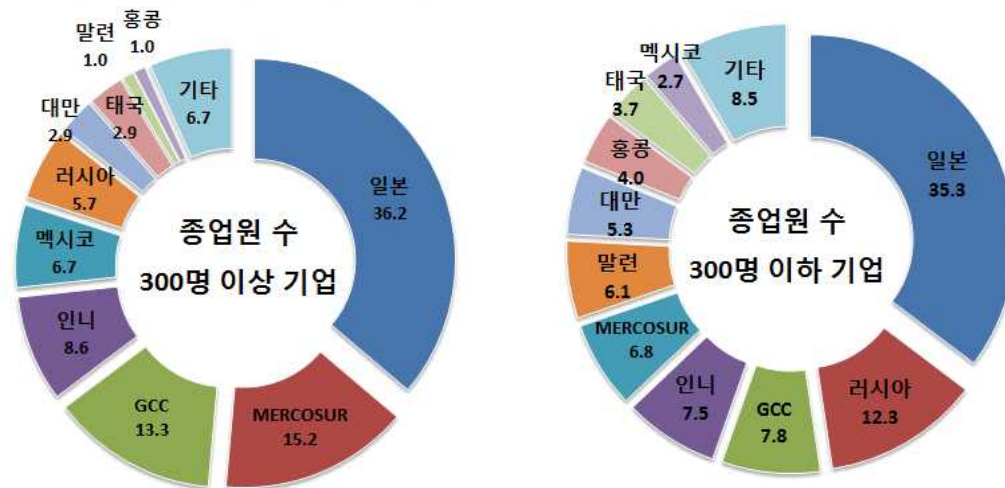
- 대기업이 선호하는 지역은 ①일본(36.2%), ②MERCOSUR(15.2%), ③GCC(13.3%) 순이며, 인도네시아(8.6%), 멕시코(6.7%)가 뒤를 이음
- 중소기업은 일본(35.3%)과 러시아(12.3%)를 선호했고, 이 외에 GCC(7.8%), 인도네시아(7.5%), MERCOSUR(6.8%)와의 FTA를 희망

4)본문에서는 종업원 수 300명 이상 기업을 대기업, 300명 이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했음

- 중소기업(26.6%)은 대기업(16.4%)에 비해 아시아 국가와의 양자 FTA 추진을 중시
- 중소기업은 말레이시아(중소기업 6.1%, 대기업 1.0%), 대만(5.3%, 2.9%), 홍콩(4.0%, 1.0%), 태국(3.7%, 2.9%)을 FTA 추진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대기업보다 높음

〈기업 규모별 FTA 추진 희망 국가〉

(단위: 비중, %)



주: 300명 이상 N=105, 300명 이하 N=657

□ (산업별) 전 업종에 걸쳐 일본을 FTA 우선 대상국으로 꼽았으며, 특히 기계(47.0%), 전자전기(44.2%), 정밀기계(40.5%) 등에서 일본과의 FTA 선호가 높게 나타남

-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은 멕시코(19.0%), MERCOSUR(14.0%) 등 시장 규모가 큰 중남미 지역과의 FTA를 선호
- 철강과 비철금속은 러시아와의 FTA를 선호하는 비중이 각각 18.2%, 23.1%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일본에 이은 업종별 FTA 추진 대상 2위 국가는 전자전기는 MERCOSUR(10.5%), 화학공업제품은 러시아·대만(9.9%), 플라스틱은 러시아(13.9%), 섬유류는 러시아·인도네시아(13.1%) 등임

〈산업별 FTA 추진 희망 국가〉

(단위: %)

품목	1위	2위	3위
농림수산물	일본	인도네시아	러시아/MERCOSUR/ 말레이시아
	(26.3)	(15.8)	(10.5)
광산물	일본	GCC/MERCOSUR/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
	(42.9)	(14.3)	
화학공업제품	일본	러시아/대만	-
	(39.5)	(9.9)	
플라스틱	일본	러시아	GCC
	(38.9)	(13.9)	(11.1)
섬유류	일본	러시아/인도네시아	-
	(23.0)	(13.1)	
생활용품	일본	MERCOSUR/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
	(23.4)	(10.6)	
철강	일본	러시아	GCC
	(31.8)	(18.2)	(13.6)
비철금속	일본	러시아	GCC
	(38.5)	(23.1)	(15.4)
기계	일본	러시아	GCC/말레이시아
	(47.0)	(12.1)	(9.1)
자동차 및 부품	일본	멕시코	MERCOSUR
	(26.0)	(19.0)	(14.0)
정밀기계	일본	러시아	GCC
	(40.5)	(11.9)	(9.5)
전자·전기	일본	MERCOSUR	러시아/GCC
	(44.2)	(10.5)	(9.3)
기타	일본	러시아	GCC
	(27.4)	(12.9)	(11.3)

주: N=762

□ FTA 추진 우선 대상국을 꼽은 이유를 살펴보면, 일본은 우리와 무역 규모가 크고 러시아, GCC 등 신흥국가들은 시장 잠재력이 높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높은 비중을 차지

- 일본을 FTA 1순위 국가로 뽑은 이유로는 무역규모가 크고(63.0%), 시장 잠재력이 높다(59.3%)는 비중이 높으며, 원료 및 부품 수입에 유리하다는 답변도 39.6%를 차지
- 러시아는 시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83.9%, 무역규모가 크다는 답변은 44.8%를 차지
- GCC와 MERCOSUR를 선정한 이유로는 시장 규모·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각각 78.5%, 93.4%로 높게 나타남

<주요국별 FTA 추진 희망 이유(복수응답)>



- 일본(39.6%), 대만(36.8%), 인도네시아(34.5%), 홍콩(33.3%)에 대해서는 원자재, 원재료 및 부품 수입에 유리하기 때문에 FTA 추진을 원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일본, 대만, 홍콩은 우리나라의 3~5위의 주요 부품소재 교역국이며, 상위 5개 교역국 중 중국(교역 1위), 미국(2위)과는 이미 FTA를 타결 및 발효했음

〈우리나라의 부품소재 교역현황(2014)〉

(단위: 억 달러)

순위	국가	수출	수입	교역	수지
1	중국	953	484	1437	469
2	미국	271	188	459	83
3	일본	141	304	445	-163
4	대만	88	130	218	-42
5	홍콩	143	11	154	132
6	베트남	125	19	144	106
7	독일	36	102	138	-66
8	싱가포르	56	51	107	5
9	인도	83	19	102	64
10	말레이시아	43	36	79	7
...					
13	인도네시아	40	11	51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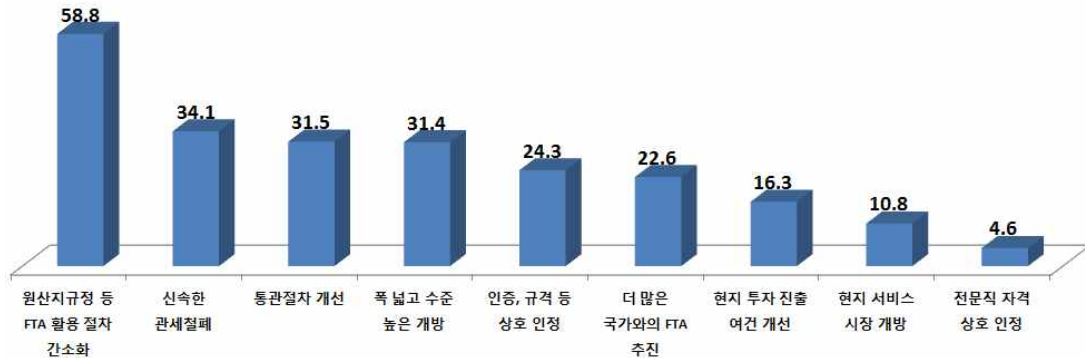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향후 FTA 추진 시 고려 사항으로는 활용 절차 간소화, 신속한 관세 철폐 등 FTA의 질적 개선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응답 업체의 58.8%가 원산지 규정 등 FTA 활용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신속한 관세 철폐(34.1%), 통관 절차의 개선(31.5%), 수준 높은 개방(31.4%)이 뒤를 이음
- 한편, 더 많은 국가와의 FTA 추진을 원하는 답변은 22.6%를 차지하였으며, 기타 고려요인으로는 현지 투자진출 여건 개선(16.3%), 현지 서비스 시장 개방(10.8%), 전문직 자격 상호 인정(4.6%)을 꼽음

〈FTA 체결 시 고려 사항(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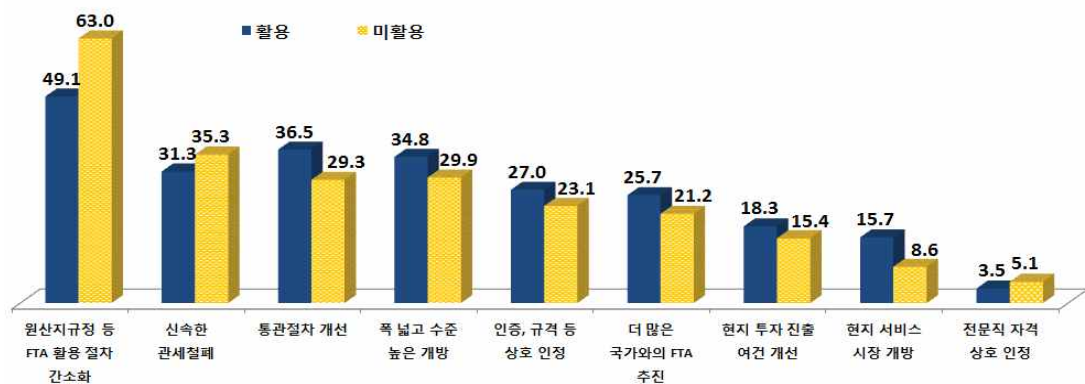
주: N=762

□ FTA 활용 기업과 미활용 기업 모두 FTA 체결 시 FTA 활용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비중이 높고, 특히 FTA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들의 경우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FTA 활용 기업들은 절차 간소화(49.1%) 이외에 통관절차 개선(36.5%), 폭 넓고 수준 높은 개방(34.8%)을 고려해야 한다는 비율이 높음
- FTA 미활용기업은 활용 절차 간소화에 대한 요구가 63.0%로 높게 나타나 복잡한 FTA 절차가 활용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 이 외에 신속한 관세절제(35.3%), 폭 넓고 수준 높은 개방(29.9%), 통관절차 개선(29.3%)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임

〈FTA 활용유형별 체결 시 고려 사항(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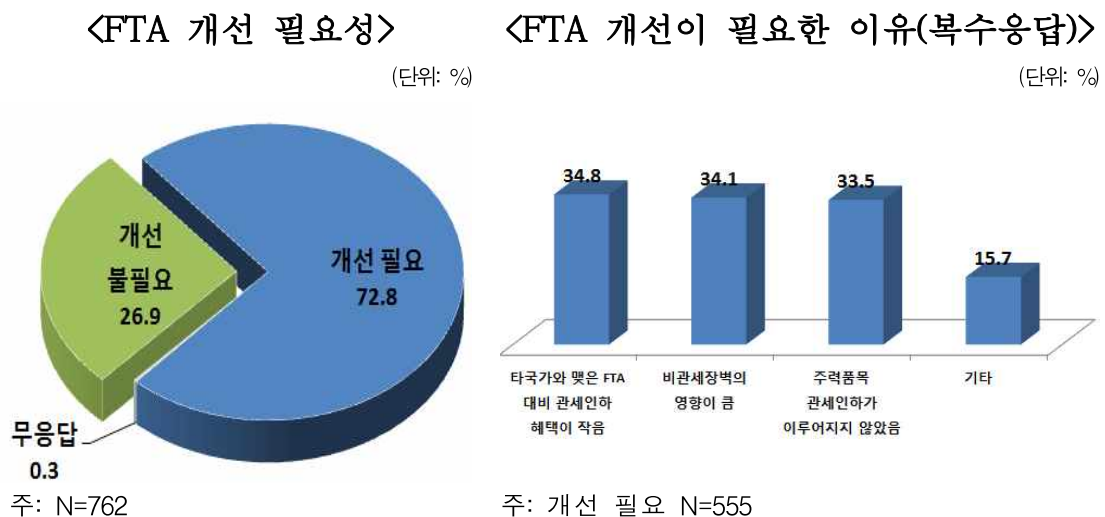


주: FTA 활용 N=532, FTA 미활용 N=230

3. 기발효 FTA의 개선 요구

□ 기발효 FTA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72.8%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

-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는 ①우리와 체결한 FTA의 관세 인하 혜택이 경쟁국 대비 작고(34.8%), ②관세 인하보다 비관세장벽의 영향이 크며(34.1%), ③주력 품목의 관세가 인하되지 않았다(33.5%)는 답변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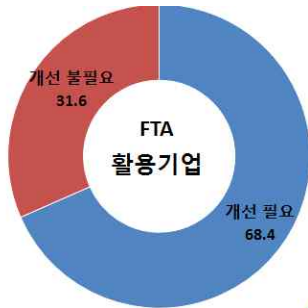


□ FTA 미활용기업의 FTA 개선 요구 비율이 활용기업보다 높게 나타나 기발효 FTA의 개선이 활용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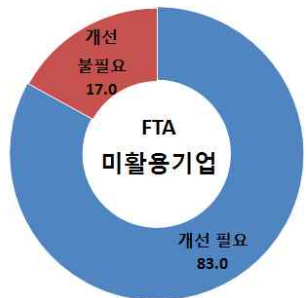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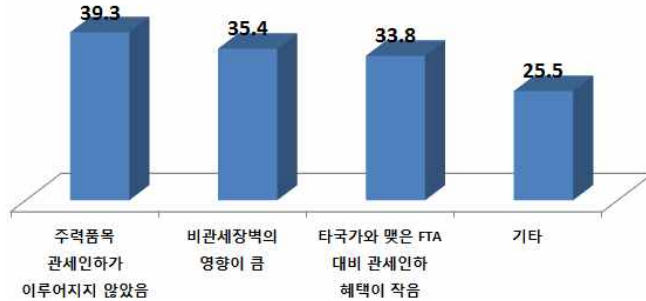
- FTA 미활용기업의 FTA 개선 요구 비율은 83.0%로 활용기업(68.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 FTA 활용기업은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 주력품목의 관세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39.3%)을 꼽은 반면, 미활용기업은 비관세장벽의 영향이 크다는 응답(39.1%)이 가장 많았음(복수응답)

〈FTA 활용유형별 개선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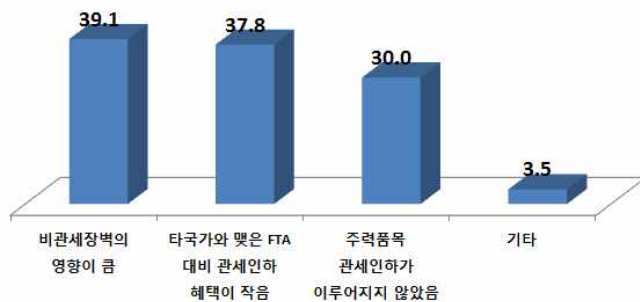
(단위: %)



주: FTA 활용 N=532



주: FTA 미활용 N=230



□ FTA 활용 기업들의 개선요구가 가장 높은 FTA는 한인도 CEPA(41.6%), 한미 FTA(31.4%), 한ASEAN FTA(30.4%) 순임(복수응답)

- 실제로 개선요구가 많은 한인도 CEPA, 한-ASEAN FTA의 활용률은 각각 56.3%, 37.0%에 불과해 여타 FTA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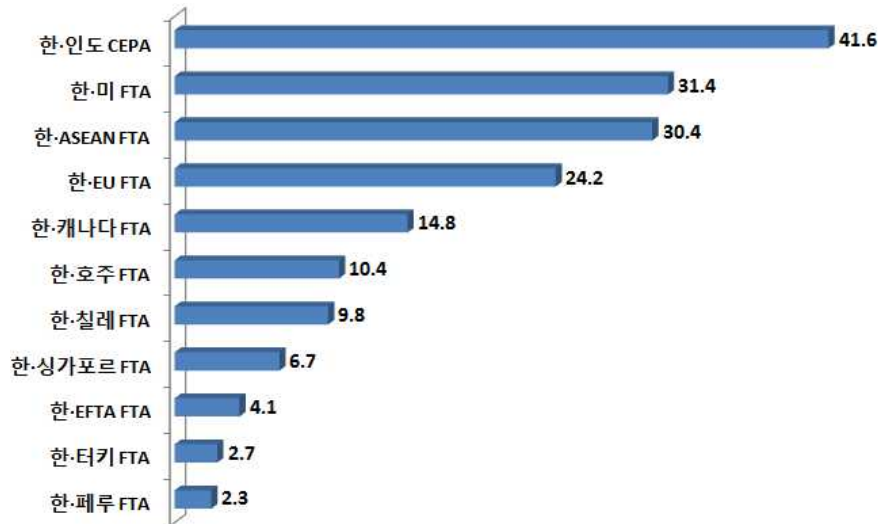
* 기체결 FTA의 수출 활용률('14.12월, 관세청): 페루(90.5%), EU(85.3%), EFTA(79.6%), 칠레(80.5%), 미국(76.2%), 터키(72.7%), 인도(56.3%), ASEAN(37.0%)

- 한-미 FTA 활용률은 76.2%로 높은 편이지만,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우려로 개선 요구 비율(31.4%)이 높게 나타남

□ 기타 의견으로는 FTA 활용 절차서류 간소화, 상대국의 비협조적 태도 개선, 중소기업 대상 FTA 활용 교육 확대, 각 FTA별로 상이한 품목분류 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든 FTA에 걸쳐 고르게 나타남

<활용중인 FTA의 개선 필요성(복수응답)>

(단위: %)



주: 해당 FTA를 실제로 활용하는 기업들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참고 발효 중인 FTA에 대한 개선 요구 사례

① (한·인도 CEPA) 엄격한 원산지 결정기준 완화

- 한·인도 CEPA는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결합기준을 채택하고 있어, 다른 FTA에 비해 한국산으로 인정받기에 까다로움
- 양허 품목의 74.6%(2,784개)에 대해 세번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을 모두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여타 FTA처럼 세번변경 기준 또는 부가가치 기준 중 하나만 충족시키면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 규정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예시) 1,000볼트 추가 퓨즈(HS8535.10)의 원산지 결정기준

협정	원산지 결정기준
한·미 FTA	6단위 세번변경기준
한·EU FTA	4단위 세번변경기준 or 가격이 해당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않는 것
한·인도 CEPA	6단위 세번변경기준 + RVC 35%

② (한·인도 CEPA) FTA 활용을 위한 인도 세관의 원활한 협조

- 인도 세관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불필요한 서류 요구 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 (사례1) 콘크리트 펌프를 수출하는 J社は CEPA 혜택을 적용받고자 관련내용을 인도 세관에 문의하였으나, 세관 직원이 FTA에 대해 무지한 상황이었으며, 담당자가 세관측에 관련 내용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관 측에서는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
- (사례2) 인도에 베어링을 수출하는 I社は 한·인도 CEPA를 통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규정에 따라 소급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였으나, 인도 내 수입업체 측으로부터 다른 파트너들이 이미 인도 세관에 소급 적용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으며 관세 환급을 포기하겠다는 연락을 받음
- (사례3) 인도에 알루미늄을 직간접 수출하는 기업 B社は 에이전트를 통한 간접 수출시에는 한·인도 CEPA 활용에 문제가 없으나 직접 수출시 동일하게 서류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세관이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한 수출 담당자의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음

③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사후검증을 간접 검증방식으로 변경 요구

- 한·미 FTA의 원산지증명서 사후검증은 우리 세관을 거치지 않고 미국 세관으로부터 직접 요청을 받기 때문에 대응에 어려움이 따름
- 한·EU FTA, 한·ASEAN FTA 등 우리가 맺은 대부분의 FTA가 간접검증 방식이나,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미 FTA는 직접검증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최근 사후검증에 대한 요청이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세관 측의 과도한 요구에 따른 애로사항 발생
- (사례)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인 G社は 美 관세당국이 정보제공요청서(CBP Form 28) 없이 사후검증을 요구하는 등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며,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완을 요구했으며, 대응 이후 종결 여부에 대한 통보도 미흡하다고 지적

Ⅲ.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무역업계 설문조사 결과, 향후 FTA 추진 우선 대상국으로 일본을 선택한 비율(35.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러시아(11.4%), GCC(8.5%), MERCOSUR(8.0%) 등이 그 뒤를 이음
 - 일본과의 FTA를 희망하는 비율은 수입 위주 기업이, 업종별로는 기계, 정밀기계, 전자·전기 관련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일본 외에 FTA 추진을 희망하는 지역으로 대기업·중견기업은 MERCOSUR, 중소기업은 러시아를 선호
- 응답기업의 72.8%가 현재 발효 중인 FTA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향후 기발효 FTA의 업그레이드 및 FTA 이행위원회를 통한 업계 애로 해소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ASEAN, 인도 등 활용률이 낮은 FTA의 경우 상품협정문상 관련 조항에 의거하여 필요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가속화를 논의하거나 FTA 업그레이드 협상 추진을 구체화할 필요
 - 한편, 한·인도 CEPA와 한·ASEAN FTA는 세관 당국 및 현지 기업들의 인식 부족과 비협조적인 태도가 활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FTA 이행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소해나가는 노력 필요
- FTA 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향후 FTA 체결시 원산지 규정 등 활용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는 노력이 필요
 - FTA 체결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FTA 활용 절차 간소화(58.8%)가 꼽혔으며, 특히 현재 FTA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의 간소화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향후 FTA 정책 추진 시 일본 및 신흥시장과의 FTA 확대와 더불어 우리 업계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발효 FTA의 질적 개선작업 병행 필요